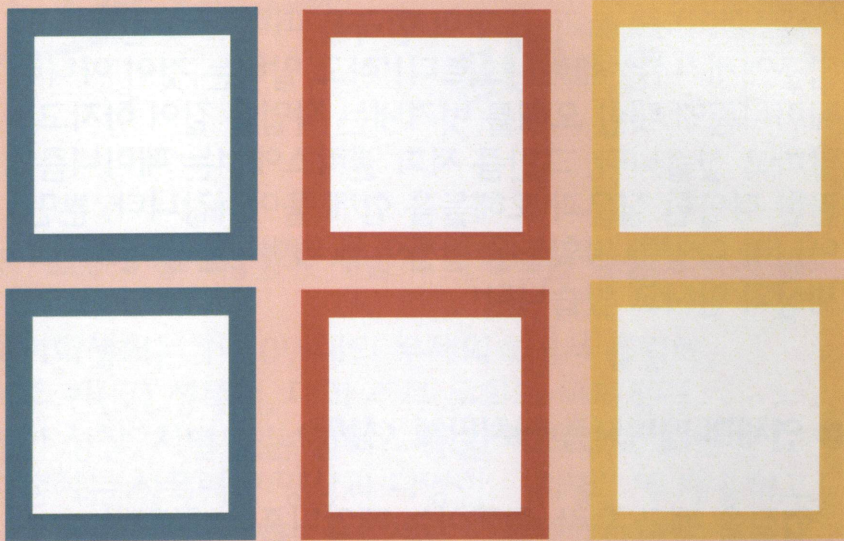


여성의 날 문화제 부스 여섯 개에서
스탬프 6개를 모으면
빵과 비누 장미를 드려요!



연세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2015 3·8 여성의 날 문화제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 그게 나야

주최: 연세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다시 봄>
협력: 여성주의 소모임 <엘리스> / 여성주의 자치단체 <참깨>
제52대 총학생회 <SYNERGY> 연대사업국

총학생회 부스

여성으로 살아남기

부스 원-

월경에서 살아남기

부스 두-

뽕얼로 살아남기

부스 쓰으라-

협력 부스

나답게, 너답게, 사회의 틀 깨기!

부스 포-

우리에 고소한 맛을 더하는 페미니즘

부스 화이브-

페미니즘이 집안일 대신 해주나요?

부스 찹스-

2015.3.10~3.12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앞 (3/10)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3/11,12)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주최: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부스 원-

여성으로 살아남기

부스 두-

월경에서 살아남기

부스 쓰으리-

쌔일로 살아남기

협력 부스

부스 포- 나답게, 너답게, 사회의 틀 깨기!
- 총학생회 연대사업국

부스 화이브- 우리에게 고소한 맛을 더하는 페미니즘
- 여성주의 자치단체 <참깨>

부스 식스- 페미니즘이 집안일 대신 해주나요?
-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개관: 3·8 여성의 날

-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의 1만 5천여 명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념하면서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학내에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총여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하는 장을 열기 위해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원-

- '여성으로 살아남기' 부스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전시하여 그 뜻을 알리고, 각 부스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 분들께 '빵과 장미'를 드립니다.
- '빵과 장미'란 노동자의 기본권(빵)과 존엄권(장미)를 뜻하는 상징으로, '인간에게는 빵뿐 아니라 장미도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파업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 여성 노동자들의 쉼터를 기념하는 여성의 날을 맞아, 학우들과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권을 모두 중시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빵과 장미'를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여성으로 살아남기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두-

- 한 달에 한번, 한번 시작되면 약 일주일씩 지속되는 월경(생리)은 여성의 인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불결하게 간주되고 감추어집니다.
- '월경에서 살아남기' 부스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월경이 수반하는 고통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활동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안 생리대를 전시하여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대안 월경대와 피임용품을 전시하고 기능을 설명해 생리뿐 아닌 몸 전반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남녀 학우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월경과 성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O/X 퀴즈도 진행됩니다.

월경에서 살아남기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쓰으라-

- 여자답게, 예쁘게, 남자답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시나요?
- ‘쌍얼로 살아남기’ 부스에는 매일 아침, 집에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의 외모를 단장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봅니다. 쌍얼인 내가 아침마다 수행하는 ‘꾸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여성성, 남성성의 강요나 외모 품평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와 뱃지를 나누어드립니다.
- 내가 상상하는 여성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하여 여성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여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려 합니다.

쌍얼로 살아남기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포-

- 비록 많은 여성단체와 깨어있는 개인들의 노력으로 이전보다는 더욱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성과 남성이 오로지 ‘성별’이라는 이유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역할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문화제를 맞이해 ‘대학문화,’ ‘취업시장,’ ‘직장,’ ‘연애/사랑,’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강요받고 있는 성 이데올로기를 조망하며 우리가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들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나답게, 너답게, 사회의 틀 깨기!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화이브-

"성차별, 요새도 그런 게 있나?"

- 일상의 성차별에 참깨를 뿌려보자!
무지개 실팔찌가 있는 <무지개 바자회>,
날 옹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성차별 발언을 깨는
<강냉이를 털어주세요>,
페미니즘을 고하는 <페미니즘 STICK>!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 수익금은 퀴어 페스티벌, 수요 집회 등의 단체에
기부됩니다.

- 국제캠퍼스에서 열리는 <성 영화제>!
섹시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국캠 3/9(월) 19시 @국캠 기숙사

우리에 고소한 맛을 더하는 페미니즘
- 여성주의 자치단체 <참깨>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그게 나야

부스 식스-

- 페미니즘이 집안일을 대신 해주나요?
페미니즘은 대체 뭔가요?
다양한 페미니즘적 주제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가는지 같이 찾아봐요!
예쁜 책갈피도 드립니다~!

페미니즘이 집안일 대신 해주나요?
-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진정한 나로 살아남기 : 그게 나아

참여단체 소개

●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후 반(反) 성폭력, 대학 주류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 차별 없는 캠퍼스 등을 기조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적 양상과 다양한 '차별'에 대응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반성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남학생 휴게권, 성소수자 학생 교육권, 장애 학생 교육권, 남학생 성폭력의 가시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 및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52대 총학생회, <SYNERGY> 연대사업국

연대사업국은 대학생으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학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고 학외의 사회적 이슈들을 학내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 내의 국입니다.

● 문과대학 페미니즘 기획대장 <앨리스>

앨리스는 문과대학 유일의 페미니즘 기획대장입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며 한국을 떠나 IS로 간 김군에게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는 작업을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 앨리스에서는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오해들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들을 만들어서 페미니즘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 연세대 페미니즘 자치단체 <참깨>

'껍질을 깨고 우리, 함께하는 페미니즘' <참깨>는 함께하는 페미니즘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들에게 고소한 양념같은 페미니즘을 향해 놀고 먹고 가고 만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깨알이 되실 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010.6630.4137 (참깨통 진영) www.facebook.com/RealSesame

2015 3·8 여성의 날 문화제